"클래식 알고 감상하니 더 잘 들려요"

'T&T 클래식' 만든 작곡가 김선철씨 색다른 시도

공연 40분 전 그날의 연주 곡목 해설

관객들 "음악 듣는 기쁨 두배"

작곡가 김선철씨는 공연 시작 전에 그날 음악회에서 연주될 곡목을 소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김선철씨가 지난달 29일 금호아트홀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모습.

"바흐 음악이 조금 따분하게 느껴지죠. 쇼스타코비치의 음악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겁니다. 오늘 모두 5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는데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연주합니다. 예전 연주법에 충실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도 있고, 또 현대적 느낌을 가미한 연주자도 있구요."

지난달 29일 피아노 그룹 '클라노비아' 창단 공연이 열린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앞 로비에서는 조금 독특한 풍경이 연출됐다. 로비 앞 의자에 모여 앉은 10여명은 작곡가 김선철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 김 씨는 공연 1시간 전인 오후 6시30분에 시작된 해설을 통해 이날 연주될 바하의 '평균율'과 쇼스타코비치의 소나타에 대해 20여분에 걸쳐 설명했다.

이날 해설을 들은 조준아(광주대 음악학과 3년)양은 "그냥 피아노곡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공연을 보기 바로 직전에 해설을 들으니 연주를 들을 때 관심을 가질 부분이나, 초점을 맞출 부분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클래식 음악 전문 기획사 'T&T 클래식'을 만든 작곡가 김선철씨의 색다른 시도다. 김씨는 앞으로 'T&T 클래식'이 기획하는 음악회에서는 공연 전에 그날 연주될 음악을 소개하는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몇년 전부터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아주 초보자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제외하고는 해설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연주회의 맥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몰입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연주회의 경우는 음악감상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런 점에서 김 씨의 시도는 의미있는 행보다. 공연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공연장을 찾는 게 아니라, 일찍 도착해 그날 연주될 음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음악회를 기다리는 건 훨씬 풍요로운 음악감상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김씨는 오래전 유학했던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공연장의 사례를 벤치마킹,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당시 공연장을 찾을 때마다 그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목을 미리 소개하고 들려주는 게 참 유익했던 기억이 있다.

공연 1시간 전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 40분전에 연주회장 로비에서 해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날 연주될 곡목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김씨는 오는 26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에서는 김씨가 연주할 베토벤과 쇼팽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다. 오후 6시 50분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B단조 작품 58',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111'과 스트라빈의 '소나타 판타지' 등을 소개한다.

또 27일 열리는 독일 피아니스트 페터 폰 빈하르트 독주회 설명도 준비중이다.

"공연 중에 진행되는 해설은 음악회의 맥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회를 찾아와서 연주를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듣는 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면 훨씬 즐거운 연주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김 씨는 "아직은 초창기라 참여자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해설을 진행해 새로운 클래식 관람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북경 '따산즈 예술시장'형성 어떻게?

'현대미술과 인문학' 세번째 강의

16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공동 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 세 번째 강의가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김성희 부교수가 '중국 현대미술과 북경 따산즈 798 지역 예술시장의 형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중국에는 크고 작은 경매회사만도 120여 개이며, 미술시장 연매출액도 6조를 넘어서 등 세계미술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 베이징은 따산즈 798 지역〈사진〉과 송장지구 등 10개의 문화특구가 형성돼 뉴욕과 함께 현대미술의 메카로 급성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12일 강좌에 앞서 발표한 강의자료를 통해 "따산즈는 단순히 예술인들이 모여 작업을 하는 예술창작촌으로 끝나지 않고, 상업갤러리가 모여들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작가 작업실과 갤러리가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미술과 인문학'는 폭넓은 인문학적 배경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키우는 연중강좌다. 지난 2월19일 첫 강의를 시작해 오는 12월17일까지 매달 셋째주 금요일(9월만 둘째주 금요일) 총 11차례 열린다. 유코 하세가와 2010 상파울로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등 국내외 대표 기획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 150명 입장.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834년작 '동래부순절도' 돌아왔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 묘사…日 경매서 구입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묘사한 그림인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사진)' 가운데 1834년 작품으로 보이는 판본이 최근 경매를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

개인 수집가인 심우희씨는 지난달 18일 일본 교토의 고기레카이(古裂會) 경매회사가 개최한 경매에서 '동래부순절도'를 800만엔(약9천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이번 경매를 주선한 전윤수 북촌박물관장이 12일 전했다. 이 그림은 그동안 교토의 한 사찰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부순절도'는 선조 25년인 1592년 동래성 부사 송상현(宋象賢·1551~1592)과 군민들이 왜군에 맞서 싸우다 모두 순절한 사건을 그린 것으로, 본래 1709년 처음 그려졌으나 이 그림은 현전하지 않고 1760년에 다시 그린 그림(보물 제392호)이 현재 육군박물관에 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그림은 비단 두 폭을 이어붙인 것으로, 가로 90㎝, 세로 134㎝이며, 왼쪽 아래 '만력 임진후 이백사십삼년 갑오 사월 일 화사본부 천총 변곤(萬曆 壬辰後 二百四十三年 四月 日 畵師 本府 千摠 卞崑)'이라고 적은 것으로 1834년 갑오년 4월에 동래부 천총 벼슬에 있던 변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가톨릭 신학교·수도원 문 활짝 연다

25일 성소주일에 일제히 개방

수도자의 생활 둘러보고 체험

오는 25일에는 광주가톨릭대 등 전국의 가톨릭 신학교와 수도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

25일은 부활 제4주일이자 전 세계 가톨릭의 제47차 성소(聖召) 주일로 일반인이 신학교와 수도원을 방문해 신학생과 수도자들의 일상을 둘러보고, 그곳 생활을 체험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도 성소주일을 맞아 나주에 있는 광주가톨릭대학에서 성소주일 행사를 갖고 대학을 개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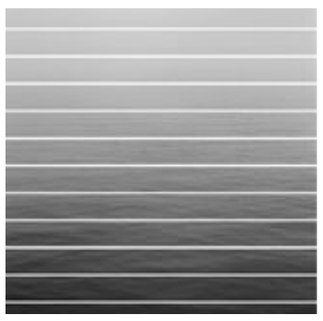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30분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성소주일 미사에 이어 신학대학 소개, 기도체험, 어울림 한마당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가톨릭대 신학대학, 인천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등 전국의 신학교들이 개방되며 의정부·안동·전주교구는 청소년 축제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성소주일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예비신학생 등은 23일까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80-228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매리 '절대 공간' 서울·뉴욕서 잇단 전시



'웨이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서양화가 이매리씨가 서울(15일까지·유엠갤러리)과 미국 뉴욕(6월13일~7월13일·엘가위머갤러리)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절대 공간'을 주제로 공간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디지털프린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든 뒤 사물에 반사시키거나 거대한 '하이힐'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선사한다.

이씨는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空·間 드러내기 은폐하기'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2-515-3970.

/오광록기자 kroh@